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12시
주일에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1부)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4월 6일 (제736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규제와 규범

한국 경제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70년대부터 나왔다. 이것이 경제발전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라도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환영한다.

규제(規制)와 규범(規範).

규제(規制)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하고, 규범(規範)이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의미한다.

성경적 규제와 규범을 보자. 예수님이 오신 후로 규제는 풀렸지만, 규범은 더욱 강화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복 잡했던 제사법은 사라졌고(히9:12), 금기되었던 먹을거리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그러나 규범은 한층 강화되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올뿐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5:17). 구약에서는 실제 간음행위가 죄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가 성립하게 되었다(마5:28). 또 구약에서는 죽어야만 살인이지만,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다(요일3:15).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다 포함되니 더욱 규범이 확대 강화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규범이 강화되었다고 겁낼 것이 없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성령께 의지하면 규범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명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마11:30).

나는 오직 예수를 전하러 왔다

오전 실업인 세미나를 마친 후, 현지 언론사의 인터뷰가 있었다. 젊은 여기자는 목사님께 '왜 베네수엘라(Venezuela)에 오셨는지' 물었다. 목사님은 너무도 당연한, 그리고 확신에 찬 어투로 말씀하셨다.

"물라서 묻습니까? 나는 예수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다. 목사님은 그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Caracas) 공항에 도착하는 11시간의 여정동안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파업사태로 공항이 마비되어 일정이 하루 늦어진 까닭

은 비서진들을 보내 우리 일행을 공항 VIP실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이번에도 동일하게 차량 및 경찰병력을 지원해주었다.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공항에서 간단히 루이스 목사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거세져 매우 소란스런 정국이라고 한다. '차베스(Chavez)라는 절대 권력이 사라졌으니 그 공백기에 당연히 따르는 진통과정'이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성장시키는 성장통과정이란 받아들이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 바로 집회 도시 과

의 약 천 여 좌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스크린을 설치하여 약 2천 여석을 준비해놓은 성전 밖 공터에도 인파가 운집해있었다. 목사님께서 기내에서 뜯은으로 11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셨으니 이미 이번 전쟁의 승리는 밝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처럼 멋지게 역사하실 지는 미처 예상치 못했다.

남미 지역 집회가 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다는 건 우리 성도들도 많은 영상을 통해 보아 익히 알고 있을 터이지만, 촬영 중에 요동하는 귀신들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상의 티셔츠에까지 여기저기 흠으로 얼룩지기는 처음인 듯싶었다. 마치 아프리카나 인도, 몽골의 야외집회



베네수엘라 미란다(Miranda) 주(州) 과레나스(Guarenas) 집회 광경

이다. 미리 하루 전에 도착하여 리들을 조절하고 집회에 임해야 하는데, 하루가 늦어졌으니 도착하는 즉시 집회장으로 가야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베네수엘라에 소요가 일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터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절실한 집회였다. 우리는 한국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루이스(Luis) 목사와 집회를 배설한 그레고르(Gregor Sanchez) 목사는 이를 연속으로 공항에 나왔지만,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바르가스(Bargas) 주의 가르시아(Garcia) 주지사

레나스(Guarenas)로 이동하였다. 경찰 사이드카의 경호가 있었음에도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숙소여 여장을 풀고는 바로 장비를 챙겨 집회장으로 향했다. 원래 지난 바르가스 집회 때, 그레고르 목사는 바르가스 집회보다 더 큰 규모로 준비하겠다고 호언했었지만, 갑자기 발생한 국내사태 때문에 500명 이상이 운집하는 야외집회는 모두 불허된 상태인 지라, 결국 집회는 그레고르 목사의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정말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오늘날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임을 알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참 지혜다.

교회는 예상보다 규모가 컸다. 본 성전

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이곳 실내 집회에서 일어났으니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번 전쟁이 얼마나 격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주셨는지 충분히 공감하리라 믿는다. "우리 하나님, 멋져부러!" 목사님 입에서 당연히 나올 법한 멘트 아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한 성도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 올라오는 고기를 보고 무너졌던 베드로처럼, 놀라움과 함께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베네수엘라 TV, 라디오, 신문사 합동 인터뷰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성전 밖 광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구유가 더러워져도 소는 키워야 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4:4)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잠14:4). 이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어릴 때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를 키웠습니다. 더구나 대농이어서 소가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집 입구에 외양간이 있었는데, 사실 소 때문에 집에 냄새도 많이 났고, 파리도 많이 꼬였습니다. 또 소똥 치우는 일도 고역이었고, 무엇보다 그 많은 소의 여물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이지 힘에 부쳤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소는 저희 집 재산목록 1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그 너른 우리 집 논밭을 다 갈아줬고,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다 짊어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가 없이 사람 손으로 했다면, 온 동네 사람의 손을 빌려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를 키움으로 인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힘도 들지만 그래도 소를 키워라. 소로 인한 이익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일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곧 좋은 면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런가요? 꼭 부정적인 면, 나쁜 면도 함께 존재합니다. 태양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에도 성공하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 둘을 다 안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포용하고,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사실 번거롭고 놀아야 할 것이

8:18)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누구든 육체적인 소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3-24)고 통탄했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인다고 해서 육체를 버리면 말이 됩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도 하고, 성령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교구’라는 목표를 세우고 30년을 달려 왔습니다. 그

없습니다.

이건 비단 영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다 이어드를 하겠다는 식욕 절제와 운동하는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면, 절대 낯선 한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끔 다이어트의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려고 약을 먹고 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자는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만 받습니다.

요즘 재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혼은 초혼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도 클 것이고, 또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재혼 안

합니까? 재혼에 따른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 즉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런데 장시간 비행과 식사, 또 음식이

안 맞고 언어소통이 안 되는 등의 문제로 힘들니다. 나이가 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주저앉아 있다면 세계교구를 어찌 이루겠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포용하고 더 큰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았기에 오늘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낼 때도 분명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더러는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게 낫겠 했더니, 애굽이 그림자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불성설(語不成立)입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까지 포용하고 감사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는 없지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하나 될 수 없고, 선과 악이 하나 될 수 없지만, 늘 함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융합할 수

국가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에도 농

산물 같은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거부하면 세계무역에서 밀리게 되는 등 큰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안고 체결하는 것입니다.

더 말해볼까요? 어떤 자들은 통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세계 3대 경제부국이었던 서독도 통일 후에 휘청거렸다는 것을 예로 제시합니다. 물론 그런 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타격이 있고, 사상적으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러나 통일이 돼서 얻는 것이 더욱 큼니다. 일단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가일층 높아질 것이며, 국가경쟁력 또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자유를 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소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사실 이거 하면 힘든 일 많습니다. 시설확충에서부터 관광객 유치까지 할 게 너무 많고 번거롭습니다. 그런데도 각 나라가 이런 행사를 유치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구유는 좀 더러워지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이익이 많기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된다**

때문입니다. 국가적 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가 장황했습니다. 우리는 5월 20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성회를 배설하기까지는 참으로 할 일도 많고, 준비할 것도 너무나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시청 앞을 채워야 하는 솔직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도 이 일을 해야 함은 이 성회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만저는 이 성회를 통해 이 나라의 통일이 담겨질 것이며, 통일이 되면 구원 얻을 백성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교단이 하나 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진각에서까지 집회를 계획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면 말이 됩니까? 구유가 더러워진다고 소를 못 키운다면 말이 안 됩니다. 장에 구더기 생기면 떠내면 됩니다. 구유가 더러우면 자주 세 지푸라기 깔아주면 됩니다.

실패나 실수가 두려워 일을 못 하는 자, 손해 볼 것이 두려워 사업 못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할 까봐, 실패할 까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자가 진짜 실패자입니다.

무슨 일에도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소를 키우세요. 도전하고, 일을 벌이세요. 분명히 소로 인해 얻는 이익과 소득이 클 것입니다. 합력무아!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참 많습니다. 남들 놀러 가는 일요일에 교회 와야지요, 수요일, 금요일에 예배 와야지요. 그러다보니 친구도 못 만나고, 교회, 직장, 집 밖에 가는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나 봅니다. 그렇다고 그 부정적인 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찌 됩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말로 구유가 더러워진다고 소를 안 키우는 격이지요.

그 정도는 약과지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벌지도 받고, 더러는 이혼도 당하고, 심하게는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거부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과 상을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

::객원칼럼::

천국을 향해 달립시다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부와 중부 산악지대의 툰드라나 황야에 들쥐의 일종인 레밍(Lemming)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레밍은 수년마다 크게 증식하여 이동하므로 '나그네 쥐'라고도 하며 몸길이가 3.5cm, 꼬리길이가 약 1.5cm인 매우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밍은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 3, 4년 주기로 그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간혹 더욱 크게 급증하는 해에는 집단이주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한 마리 레밍이 앞으로 막 달려가면 다른 레밍들도 그것을 보고 이내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큰 무리를 지어 들판과 도로와 마을을 질주합니다. 레밍이 떼를 지어 마을을 지나갈 때, 처음에는 개와 고양이들이 이들을 물어 죽이다가 곧 지쳐서 나중에는 그냥 쳐다만 봅니다. 이들이 해안 절벽에 도달하게 되면 천두 그룹은 뒤에서 달려오는 레밍들 때문에 멈출 수가 없게 되어 잠시 멈춰서 있다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게 되고, 뒤에서 달려오던 레밍 떼들도 줄을 이어 뛰어들게 되어 결국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레밍과 같이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행동하는 현상을 레밍효과(Lemming Effect)라고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자기의 판단이나 주관 없이 남들을 따라 주식을 팔거나 사는 뇌동(雷動)매매, 드라마에 나오는 의복이나 언어를 똑 같이 따라하는 것, 유행한다고 하면 무작정 따라하려는 행위 등이 모두 이런 현상에 해당합니다.

기독교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요? 이자를 많이 준다거나 투자 가치가 크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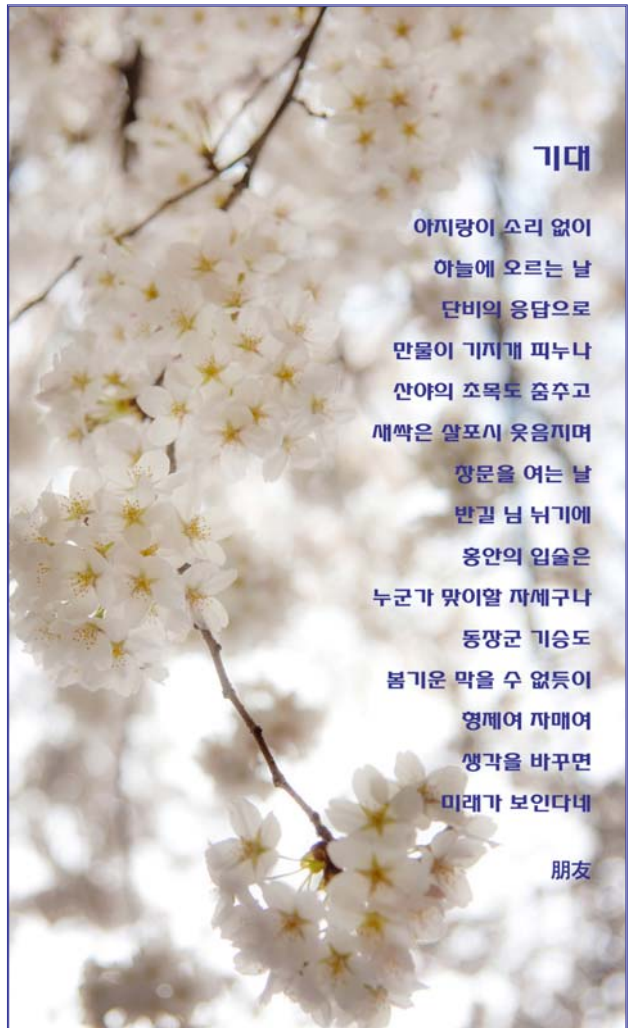
만 듣고 무모하게 투자해본 적은 없나요? 요즘 새로운 한류열풍으로 떠오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오는 의상이나 소품을 사본 적은 없나요? 흥대 앞거리에서의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란 의미의 은어)에 참여해본 적은 없나요? 과도한 음주가무에 휩쓸려 본적은 없나요? 자녀들을 무조건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고액 과외나 유명학원을 찾아본 적은 없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권세나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들은 정보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정보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물을 편파적 시각이 아닌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살던 유대인 세네카 소다는 "40일간의 천국체험"에서 생생한 천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레밍과 같이 부화뇌동하여 살면서 죽음의 질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관섭 장로

kwansup1029@hotmail.com



기대

아지랑이 소리 없이

아늘에 오르는 날

단비의 응답으로

만물이 기쁘게 피누나

산야의 조목도 춤추고

새싹은 알포시 웃음지며

창문을 여는 날

반길 남 뉘기에

용안의 입술은

누군가 맞이할 자세구나

동장군 기승도

봄기운 막을 수 없듯이

영계여 자매여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네

朋友

::심리칼럼::

내재적 동기

장사를 하던 한 노인은 가게 앞에서 강통을 치며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을 저지하고 싶었지만, 쉽게 말을 들을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바로 강통을 차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1,000원씩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들이 강통을 차기 때문에 주는 거야. 앞으로 계속 강통을 열심히 차고 시끄럽게 해주렴. 그럼 내가 매일 1,000원씩 주마."

노인이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도 강통을 차면 계속 돈을 주겠다는 솔직한 제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뻐하며 매일같이 그의 가게 앞에 가서 열심히 강통을 쳤습니다. 강통을 차는 아이들에게 매일 1,000원씩 주던 노인은 며칠 뒤에는 500원을 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요즘 장사가 잘 안돼서 말이야. 앞으로는 500원밖에 못 주겠어." 아이들은 실망하긴 했지만 500원도 이들

에게는 큰돈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열심히 강통을 쳤지만, 전보다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인이 100원을 내밀었을 때, 아이들은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며 가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강통 차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다시는 강통을 차나봐라!"

그런 아이들의 뒷모습에 노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은 그의 가게 근처에서 강통을 차지 않았고, 노인은 한결 조용해진 환경에서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안의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기'란 행동에 에너지를 부여하여 목표를 향하도록 이끌어가는 욕구로, 어떤 행동이 보상 때문이라면 이를 외재적 동기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하고, 행동 자체가 즐겁거나 흥미로움에 일어난다면 이를 내재적 동기에 의해 유발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목적이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거나 용돈을 받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외재적 동기에 속하며, 배우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내재적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자라면서 '이 정도 하면 이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수많은 약속이 동기가 되어 무언가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좋아서 하던 일이라도 보상이나 처벌이 가해지면 내재적 동기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밖에 안 해주실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가도처럼 "나와 나의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대상29:14)"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선진

sunin91@naver.com



귀를 기울이세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런던 대공습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 맞은 건물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건물은 붕괴 직전이었고, 마당 앞에는 며칠 전 투하된 포탄 때문에 커다란 구덩이가 나 있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그 속에서 딸에게 따라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빠, 아빠가 안 보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구덩이 앞에 서서 두려워 말고 있는 딸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네가 보여.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 어린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구덩이로 팔짝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열어 보이시지는 구덩이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못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구덩이에 뛰어든 그 딸처럼, 그곳이 불 속이든, 사자 굴이든, 어둠 속이든 뛰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결코 서리라(대하20:20)"

신학주 전도사

blessedmbc@naver.com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생각해봅시다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미덕

“한 마디로 평생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묻자, 선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루어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이 당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비교입니다. 남과 비교당하면 그 기분 나쁘이 하루 이를 가지고는 풀리지 않아요. 어떤 건 몇 년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비교 당할래, 때 맞을래라고 물으면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때를 선택할 정도지요. 그래서 전 스스로 정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후배나 부사수가 크게 잘못하더라도 혼은 내되,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가 생겨나는 건,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기 때문일 겁니다. 험담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뒷담화 한다던가, 뒷사람의 무례함에 치를 떠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군다던가,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아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자를 깔본다던가요. 본인이 받기 싫은 거 하나씩만 남들에게 주지 않아도, 이 세상엔 70억 개의 불쾌함이 사라질 겁니다. 내가 받았던 것 중 좋은 것을 남에게 주면 어떨까요? 예전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를 기운 나게 했던 것은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웃으며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좋은 손님들이었죠. 상냥함이라는 팀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드지요. 그 이후로 어느 가게에 가든지 상냥함이라는 팀은 꼭 빼먹지 않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조금만 잘해도 엄청 크게 칭찬해주는 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몇 시간이고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게 된 건, 제가 힘들 때 친구들이 그랬기 때문이고요. 부사수가 슬럼프 때문에 일을 잘 못해도 나무라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음은, 저의 팀장님도 끝까지 저를 기다려줬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

면 당신에게 용서를 베푼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처음엔 당신을 용서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도와주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을 기꺼이 도와줬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을 아껴줬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용서와 도움, 배려, 친절을 받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받았던 좋은 것을 하나씩만 남들에게 돌려줘도, 이 세상엔 70억 개의 기쁨이 생겨날 겁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치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치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누가복음 6장 37~38절).

심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종합병원에 가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란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통증을 줄여주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상으로 돌보는 전인적인 서비스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사별 후에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말기 암환자들이 많은데 신체적인 돌봄 외에도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우울증이나 분노를 조절하는 역할

을 수행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사지, 웃음치료, 음악이나 미술치료, 원예치료, 영상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은 재미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여 죽음의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죽음의 모습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믿음 가진 자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갑니다(눅 16:22).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찬양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발버둥 치며 고통을 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건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간을 사수하라

얼마 전까지 ‘간 때문이야’라는 가사의 노래가 나오는 광고가 있었다. 이 노래를 부른 차두리 선수는 운동선수다보니 육체적인 피로감을 간을 건강하게 관리해줌으로써 해소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자 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피로감은 간 때문일까? 한 의학에서 간은 혈(血)의 보관과 순환에 관련된 장기로 동의보감에서 설명하고 있다. 충분한 양의 피가 있고, 손발 끝까지 충분히 적셔주어야 혈액순환이 되고 몸의 기능이 바로 선다. 반대로 혈액이 부족하거나 혈액의 질이 떨어지면 손발이 차고 순환이 되지 않게 된다.

또한 눈의 질환, 근육질환, 전립선, 자궁 관련 질환을 간과 관련된 질환으로 보고 있다. 즉 간의 기능이 너무 약하거나 과할 때 근육이 이완되거나 떨리거나 굳거나 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불면증이나 격한 분

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 기능이 과한 것으로, 이 경우 간의 열을 낮추는 시간탕으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있듯, 간세포는 서서히 파괴되어 반 이상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후다.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간은 여간해서는 회복되기 쉽지 않다.

간을 일상생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을 적게 복용하고,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고, 주 3~4회, 30분 이상 운동이 필요하다.

간에 좋은 음식으로는 민들레, 다슬기, 추어탕, 결명자 등이 있다. 결명자차는 눈이 피로하고 충혈이 심하며 체력이 좋은 사람이 복용하게 되면, 눈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다만 체력이 너무 약한 사람이 복용하면 설사를 하거나 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

여야 한다. 헛개나무나 다슬기와 같은 것들은 간수치를 내리는 효과가 있으니 간이 건강치 못한 경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복용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간혹 성직자들을 비롯해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지방간이 있거나 간이 건강치 못한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운동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간에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것은 간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적절한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대인관계와 함께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이라면서,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면서,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하면서,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했던 나였음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길 원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얼마나 부도덕하게 살아왔는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악을 보고 아무런 양심이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진정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고난과 희생의 종교임에도 제자신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이며, 겸손하지 못하며, 그런 가식적인 믿음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하며... 그런 나를 다시 보고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꼭!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와는 반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투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위 기도문을 읽자니 속을 들킨 것처럼 뜨겁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요, 나요’ 했던 나, 주의 일에는 이리 계산하고 저리 빼고 더하지만 내 것에는 무리하기까지 하는 나...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상상력부터다.
내 상상력의 전원을 끄지 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